

경제

Biz & Economy

8 광주일보 제17517호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주가	환율	금리
-3.06	+3.30	-0.01
1,292.05 (코스피지수)	965.60원 (원/달러)	4.79%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46.15	(-5.29)
다우(2일)	11,199.93	(+74.20)
나스닥(2일)	2,078.81	(+16.82)
닛케이	15,470.37	(+6.0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94엔	(+0.30)
유로-달러 환율	1.2755달러	(-0.51)
3년만기 회사채	5.11%	(-0.01)
클레리	4.23%	(+0.01)

光銀 신용등급 'BBB' → 'BBB+'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3일 광주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단기 신용등급은 'F3'에서 'F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권부총리 “기업규제 재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번주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태스크포스는 창업·공장설립, 유통·물류, 환경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구매·제조·물류·마케팅·서비스 등 기업활동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법률·행정·조세·노동·금융 등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달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까지 감안하면 7월 실물지표들은 예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의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소비 등 실물지표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일시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지표변화에 대해 큰 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별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비심리 6개월 연속 하락

소비심리 급등으로 소비자지수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소비자지수대수가 94.3을 기록, 전월보다 3.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지수대수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3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작년 1월의 92.5 이후 18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 향후 경기전망은 더욱 어둡게 했다.

소득계층별로 전계층의 기대지수가 하락하면서 모두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층별로도 모두 지수가 악화됐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도 78.7로 전월보다 3.2포인트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 작년 8월의 78.3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6개월 전에 비해 저축이 증가했다 등 응답한 가구는 12.5%로 전월보다 0.7%포인트 떨어졌 반면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2.3%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술혁신중소기업 급증

광주·전남지역의 기술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이노비즈는 155개로 지난해 말 123개사에서 32개사(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찬 광주·전남중기청 기술지원과장은 “이는 지난해 35개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노비즈 육성정책과 더불어 지방청이 상반기에 18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 효과가 큰 효과를 본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노비즈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역 내 30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이노비즈 인증 코칭 프로그램을 추진, 연말까지 70여개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1~2년내 단기 투자맨 채권형 유리

지난 5월 종합주가지수가 117.20 포인트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조4천756억원 급증하면서 총 설정잔고가 40조원에 이를 정도로 펀드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개인들의 투자행태가 직 접투자 위주에서 간접투자 로 바뀌면서 단기 장세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정착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채 막연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증권, 부동산, 실물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 돌려주지만, 확정금리형 금융상품과는 달리 투자에 대한 위험이 동반되며 이에 따라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권유한다하여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재무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펀드 투자가 필요하다.

자신에 맞는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계획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자금규모를 예측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하려면 연 수익률 8%로 매

3년후 주택 구입... 공격적인 주식형 선택 자금 계획부터 명확히 세워야 수익 창출

월 247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재무계획이 세워졌으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년 이내의 단기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가 유리하며 3년 이상의 중장기에는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가 유리하다.

구체적인 펀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흔히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히 일정기간 높은 수

익을 냈다고 해서 좋은 펀드로 보기는 어렵다. 즉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클 경우(수익률이 들쭉날쭉 할 경우)에는 동일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펀드 운용 회사의 철학과 펀드 관련 실무자들의 경

험 및 능력을 우선 고려한 뒤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를 선택하는게 좋다.

펀드 선택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펀드는 매입시의 평균 기준가와 환매시의 기준가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므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시장상황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의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펀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펀드평가(http://www.kfr.co.kr)와 제로인(http://www.zeroin.co.kr)과 같은 펀드평가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재무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재무계획에 따른 펀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NV피어선셀클럽 탐장



시원한 여름...고객 유혹 광주신세계는 3일 오전 백화점 1층 중앙통로에 시원한 여름을 느낄수 있는 크루즈 배와 야자수 정원을 조성, 바캉스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OLED 차세대 조명 본격 개발

<유기발광다이오드>

생기원 광주센터, 2013년까지 203억 투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이용한 차세대 조명기구 개발이 오는 9월부터 광주에서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의 ‘OLED기술을 이용한 면(面)발광 조명개발사업’이 2006년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지원대상과 제도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삼성, LG 등 일부 민간기업이 OLED 조명을 연구해왔으나, 정부 지원으로 OLED조명을 연구하게 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하고 있는 LED조명과 함께 OLED 조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게 돼 ‘빛고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세대 조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연구에는 금호전기, 삼성SDI 등 8개 기업,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연구기

관, 경희대 등 3개 대학, 산자부 등 2개 정부 기관 등 모두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오는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7년동안 모두 203억원(정부 136억원·민간 67억원)을 투입해 자체 발광형·저 소비전력·넓은 시야각·고속의 응답속도·자유로운 디자인성 등의 특성을 갖는 OLED 구조를 이용한 면발광 조명기구를 개발하게 된다.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센터 등은 특히 두께 1~2mm로 먼 전체에서 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만들어 벽에 붙인다거나, 커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은, 납 등 오염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색순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핵형광등 위주의 조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놓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OLED를 이용한 면발광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유기발광다이오드. 유기 재료에 전기를 가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소자. 자체발광·고속응답·광시야각·초박형·내구성·넓은 온도 범위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차적인 디스플레이로 각광 받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세금우대 통장 사라진다

연 3조 증세...반발거셀 듯 조세부 감면제도 운용 발표

농어가복돋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되는 것을 비롯,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세금 우대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해온 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주택 저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8월중 세제발전심의회 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중 17개를 폐지하고 7개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우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중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역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일반적인 저축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 제도의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시장의 혼란을 고려, 일정기간의 일몰시한을 정한 뒤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세금우대 금융상품인 조합의 정기예탁금도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저율 과세키로 했다.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연간 2조~3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3조원 내외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금융계의 절세상품이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무역업계 대표와 유관기관장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환율 안정·환변동 보험료 등 지방 수출기업 지원 해달라”

무역업계, 정부에 건의

광주·전남 무역업계는 최근 환율 하락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대내외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율안정, 환변동보험료 지원확대, 수출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대책을 3일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 무역업계는 이날 신양파크 호텔에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과 유관기관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방 수출기업의 경우 마케팅능력 미흡, 정부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무역업계는 또 지방 수출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기업 종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류비 지원대책과 관련, 한 참석자는 “경기·영남 등 타지역에 비해 자체운송에 필요한 호남지역간 내륙도로망이 미비해 수출부대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FTA체결에 따른 시장확대, 수출산업 고도화, 선진무역 인프라 구축 등이 전제된 경우 마케팅능력 미흡, 정부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지원안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터(전남본부)	스키아리프 광고고객센터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4	062-360-0503
(주)캐리스	연구직/사무직/영업관리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0	062-972-5086
(주)광주정기기업	품질관리/여사무원 구함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8/12	062-943-2818
남해종합개발	전기설비기사/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및 안전관리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7	062-220-2514
(유)광주서비스센터	ILG전자 A/S센터일반직/전체제품수리 경력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8	062-512-6212
(주)오리온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5	062-373-2391
순천침담대학	순천침담대학 간호과 광주기숙사 사강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8/17	061-740-7134
(주)에림종합건설	일반사무 및 경리사원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8/12	062-682-0453
신영중공업(주)	경영지원본부 총무팀장 모집	초대졸/경력10년	2400~2600	08/21	061-462-370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무로]CGI분야/SW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초대/경력무관	회사내규	08/11	062-654-3623
(주)한주	생산/생산관리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62-941-239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